



화사한 민화 단아한 한복의 매력



변대용 작 '길 위에서'

전통 민화와 한복.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광주를 찾는 국내외인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또 광주의 고유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국민화디자인센터와 다점아트컴퍼니가 기획한 '한국을 담은 민화 특별전, 한국을 담은 한복전'이 오는 28일까지 하이다이빙 중목이 열리는 조선대 중앙도서관과 국제관에서 열린다.

23일 수영대회 응원차 광주를 찾은 김정숙 여사가 들르기도 했던 민화전은 서울 가회민화박물관(관장 윤영수)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민화전에는 화조도, 장생도, 모란도, 책가도 등 19세기 작품 116점이 전시되며 수영대회를 맞아 물 속의 물고기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을 표현한 '어해도'를 선보인다. 최근 향유 인구가 늘어나 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마련된 전시로 민화에 호기심이 관심을 가질만 하다.

떠들이 화가부터 화원 출신 화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그린 민화는 궁중, 사대부는 물론이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향유한 친근한 그림으로 부귀다남, 부귀공명, 무병장수, 수복강녕 등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또 일상생활, 신앙, 염원, 꿈과 사랑 등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로 집안 곳곳을 장식하고 결혼식이나 회갑연 등에서 병풍 등으로 쓰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희자씨 등 호남 민화사랑회 회원 작품 15점도 함께 전시됐다. 민화전과 함께 열리는 한복전에서는 한복디

'한국을 담은 민화 특별전, 한국을 담은 한복전' 전 서울 가회민화박물관 소장품 116점·관례복 등 전시 고운선갤러리선 궁중복식 전...광주대표·북한음식 체험도

자이너 오점희씨의 작품인 관례복 5점과 족두리 등을 만날 수 있다. 무료 관람.

지난 5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문을 연 고운선갤러리도 궁중복식 전시회를 기획했다. 고운선갤러리는 한복디자이너 고(故) 고점례 대한민국 한복명장의 작품을 상설 공간이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명장이 재현한 화려한 궁중복식을 선보인다. 곤룡포, 적의, 노의, 황원삼, 활옷, 용복, 당의, 답호 등 20여점을 만날 수 있으며 대삼작 노리개 등 전통 소품도 함께 전시된다.

갤러리를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 전시회 후 궁중의상을 직접 입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갤러리에는 '일월봉황도' 등이 그려진 포토존 등도 마련돼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372-9397.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광주대표음식 및 북한향토음식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8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체험에서는 오리탕, 상추튀김, 주먹밥, 송정떡갈비, 육전 등 광주 대표음식을 만날 수 있다. 또 환경도 아름답고 맛도 좋은, 황해도 수수정단을 넣은 냉콩국수, 개성 지역 조랭이 떡국 등 북한향토 음식도 직접 만들어 본다.

실습은 무료로 진행되며 오숙자, 김봉화, 최영자씨 등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

레음식장 등 20여명이 진행한다. 문의 062-410-664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 고운선갤러리에서 만나는 고(故) 고점례 명장의 '청적의'
2. 가회민화박물관 소장작 '모란도'
3. 오는 28일까지 조선대 중앙도서관에서 전시되는 '화조도'
4. '한국을 담은 한복전'에서 전시되는 오점희 한복디자이너의 작품.



'나만의 [] 해소법'

광주신세계갤러리, 25일부터 아트바캉스전

어딘가로 떠나는 백곰 가족들의 모습이 미소를 머금게 한다. 푸른물이 쏟아지는 컵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며 색다른 느낌을 준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아트바캉스전 '나만의 [] 해소법'을 25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귀여운 백곰 캐릭터의 변대용 작가와 우리 주변의 사물을 점, 선, 면으로 표현하는 엔조 작가 2인전으로 꾸러졌다.

변대용은 알록달록 파스텔 톤의 아이스크림을 찾아가는 곰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엔조는 3차원 공간 속 사물들을 검정색의 두꺼운 외곽선과 시원한 푸른 색채의 2차원 입체 작품으로 개성 가득한 작가만의 해소법을 제안한다. 작가들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담긴 작품들이다.

동글동글한 동물 이미지를 산뜻한 파스텔 톤으로 표현한 변대용의 '아이스크림을 찾는 백곰' 속 주인공들은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언제나 즐거워 보인다. 하지만 사실 백곰 가족은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는 지구의 재앙 속에서 아이스크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인공적이긴 하지만 알록달록한 색상의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그들을 달래주는 위로와 위안의 상징이기도 하다.

엔조의 작품은 3차원의 현실을 원근법을 차용, 2차원의 평면 캔버스에 표현해 온 기존 미술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됐다. 전시장 벽면에 그려진 것 같은 오브제들은 다시 자세히 보면 벽면에서 떨어진 3차원의 입체 작품으로 흥미롭다.

문의 062-360-12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엔조 작 '아이스크림콘' '쏟아지는 컵'

문화전당, 광주정신 확산 '5월 스토리 퍼즐' 확대 운영

'오월 스토리 퍼즐', '오월카드', '열흘간의 나비떼'.

위에 열거한 내용은 광주 5·18을 모티브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오월 스토리 퍼즐'은 5·18 당시 광주 시내 지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퍼즐로 완성하는 현장학습이다. '오월카드'는 카드를 활용해 5·18사적지를 기억하는

프로그램이며, '열흘간의 나비떼'는 광주5월을 시간상으로 구성된 설치작품으로, 옛 전남도청에 전시돼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확대 운영한다. 현장학

습이 어려운 학교는 직접 방문해 운영하는 등 이를 토대로 및 '광주정신'의 가치를 확산하기로 했다.

'오월 스토리 퍼즐'은 ACC에서 자체 개발한 교구재를 활용해 전문가가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 초 광주교육청 협조로 희망 학교를 선정해 4~6월에 총 28개 학교를 운영

했으며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5월 기념주간에는 옛 전남도청을 찾아오는 10개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도서 벽지 등 광주까지의 현장학습이 어려운 18개 전남·북 학교를 방문해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모두 25개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10개 초·중학교를 8월 28일까지 모집 중이다. 문의 062-601-446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